

변화무쌍한 '공간의 멋'

가람의 장면들



합천 해인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20

세기에 나온 건축선언 가운데 '건축의 주인은 공간이다'라는 말이 있다. 조각과 건축이 다른 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내부공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서양건축이나 현대건축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건축은 상황이 달랐다. 웬만한 고을의 대웅전은 20평이 채 안되어, 실내에 들어가 법회를 열 수 있는 인원은 불과 40명 정도이다. 그러나 대웅전 앞의 마당은 몇백명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이다. 기능적으로도 우선 마당과 같은 외부공간이 내부보다 으뜸이었다.

실제 공간을 갖는 건물은 각 사찰이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순천 선암사의 대웅전이나, 부산 개암사의 대웅전은 시대적으로도, 규모로도, 형태적으로도 유사한 건물이다. 그러나 외부공간은 사상이 다르다. 선암사 마당은 여러 전각들로 감싸진 아늑한 마당이고, 개암사는 아무 건물 없이, 오로지 시원하게 탁진 마당에 대응한 우뚝한 모습이다.

가람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통건축물들을 특징있게 구별해 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들로 이루어진 외부공간의 모습이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주인은 외부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외부공간이라는 말이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붕이 있는 공간인가 아닌가의 차이이다. 외부공간은 하늘을 지붕으로 삼는다. 지붕이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공간과는 다른 공간적 성격을 갖는다. '1:10 이론'에 의하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스케일 차이는 거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예컨대, 3m 짜리 방안의 크기감을 외부에서 느껴려면 30m 정도의 마당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만큼 외부공간은 넓은 크기를 필요로 한다.

말안대장경관을 소장하여 범보사찰로 유명한 가야산 해인사로 가보자. 우선 일주문부터 천왕문까지 전개되는 진입부가 인상적이다. 길고 곧게 펼쳐진 길의 양쪽에는 높



바람 일으키는 판전 해인사 판전사(사)의 긴 마당. 이 마당은 길뒤편의 판전을 산책으로 삼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계곡과도 같이 여기에서 부는 바람이 판전사내로 들어가 강판들이 습기에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국보적 가치의 마당이다.

- 복도형 공간** 일주문~천왕문 가로수길 운치
- 방형 공간** 대적광전마당 법회·행사 열려
- 역복도형 공간** 경판전 골바람 경판부식 막아

은 천나무, 자작나무들이 가로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들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정경관을 보강하기 위해 지은 기다란 2개의 참고전이다. 대적광전 뿐 아니라, 이 참고전들 역시 국보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지만, 그보다 더,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이루어진 긴 마당 역시 국보적인 마당이다.

우선 이 마당은 좌우 폭에 비해 길이가 얇다. 하늘에서 보면 가로:세로의 비가 4:1이 넘는다. 보통 마당들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에 비하여, 이 마당은 옆으로 긴 이상한 형태의 마당이다. 그러나 이 이상한 마당이 있기 때문에 기다란 두 개의 판전 건물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마당은 앞 뒤

의 판전을 산책으로 삼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계곡이다. 계곡에는 골바람이 분다. 이 마당의 골바람은 판전 내부로 들어가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대적광전이 습기에 부식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정방형의 '방형 공간'이나, 좁고 긴 '복도형 공간'에 익숙한 우리의 공간감각을 여지없이 해체하면서, 낯설고 충격적인, 그러나 안정되고 감동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가야산 해인사의 건축이 감동적인 이유는 건물들에 있지 않다. 일주문, 천왕문은 어느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대적광전은 짜리뭉뚱한 지붕을 가진 불연진 건물이며, 최근에 중건된 구공루는 우악스럽고 사납다. 그러나 하나 하나의 외부공간들은 완벽하게 구성된 공간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그러면서도 변화무쌍하다. 해인사는 진입로의 '복도형 공간', 주마당의 '방형 공간', 그리고 경판전의 '역(逆)복도형 공간' 등, 다양한 모습의 마당을 다 가지고 있다. 해인사의 건축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온화한 미소에 입체감 뚜렷

남원 마애여래입상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남원 마애여래입상

남원시 이백면 양기리 수정산 여원재 커브길 남머리지에 있는 마애여래입상. 남원과 운봉을 이어주는 여원재는 그 옛날 길을 오가던 나그네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며 쉬어갔을 법하다. 오랜 세월동안 불상을 호위하였을 고목나무가 답사반에게 무언가 잊혀진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다.

이 불상의 상단부에는 흠을 파서 좌우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마애불열으로 2개의 돌기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는 보호각이 있었던 흔적이 역력하다. 석불문화연구회 유영철씨는 "신체적인 균형미, 발의 두터움, 신체의 육감적인 면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말기에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마애불열 왼쪽으로 가로 세로 1.5m의 바위에 평문이 새겨져 있는데 글씨가 뚜렷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누군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 양기리 불상은 96년 도로확장 공사시 비지정문화재 보호소홀로 인해 훼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불상 상단부 배수로 시설 "균형미 부족 고려말 작품"

방풍같은 바위 중앙에 양각으로 조성돼 있는 마애불은 전체높이 2m30cm, 건록 1m20cm 크기로 두상과 손목의 오른쪽 일부가 파손됐고 미소를 머금은 눈과 코와 입의 형태가 뚜렷하다. 귀는 커서 늘어졌으며 상호는 원형감이 풍부하여 증식하게 보이고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불의는 통견으로 우추를 완만한 원형 형태로 부드럽게 처리하려 했으나 산이 쪼아 무거워 보인다. 법의가 두텁고 공배는 음각으로 형식적으로 표현했으며 상체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김제 문수사 석불여래좌상

고종: 정영호 박사



김제 문수사 석불여래좌상(본지 239호 14면 참조)은 화강암의 판석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발의 머리위에는 반구형의 육계가 있고 상호가 정제된 모습으로 원만하여 인자하면서도 근엄하게 보인다. 이마에는 백호의 흔적이 보이는데 양쪽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는 삼도가 뚜렷해 있다. 특히 큼직한 다섯 연꽃잎 사이에 피어난 소용의 연꽃봉오리를 장식한 양련좌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문수사 석불여래좌상은 당당한 어깨, 안정감있는 무릎, 장식적인 조각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상이다. 아쉬운 것은 수인과 선을 후대에 뚜렷하게 보이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점이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문수사 석불여래좌상 안정감 있고 장식사용 정제미 갖춘 고려불상

김제 문수사 석불여래좌상(본지 239호 14면 참조)은 화강암의 판석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발의 머리위에는 반구형의 육계가 있고 상호가 정제된 모습으로 원만하여 인자하면서도 근엄하게 보인다. 이마에는 백호의 흔적이 보이는데 양쪽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는 삼도가 뚜렷해 있다. 특히 큼직한 다섯 연꽃잎 사이에 피어난 소용의 연꽃봉오리를 장식한 양련좌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문수사 석불여래좌상은 당당한 어깨, 안정감있는 무릎, 장식적인 조각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상이다. 아쉬운 것은 수인과 선을 후대에 뚜렷하게 보이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점이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BBS 불교방송
◆ 후원회 ARS : (02)700-0108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